



마지막 토요일 상설공연은 '판소리 산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4일 서석당...아쟁 연주 등

매주 토요일마다 신진 전통문화예술인들이 끼를 펼치는 '토요일 상설공연'이 일년 대 장정을 마무리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올해 마지막 토요일 상설공연 '판소리 산조무대'를 오는 4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연다.

김일규류 아쟁산조를 전수하는 김나후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김일규류 산조는 1960년대 장월중선의 가락을 이어 아쟁산조를 구성, 남성적 매력에 깃든 선법과 표현력을 보여준다.

전남대 국악학과를 졸업한 아쟁연주가 김나후는 (사)내벗소리민족예술단, 그루의 단원으로 활동해 왔다.

'보성소리강산제 심청'도 들을 수 있다. 심청가 중 '시비따라' 대목부터 '스님이 심봉사를 물속에서 꺼내주는 대목'까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전남대 국악학과 동문인 소리꾼 신가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악예술강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전통문화관 토요일 상설공연은 올해 초 공모를 통해 22작품을 선정, 여기에 기획초청공연 8작품을 더해 총 30회 무대를 선보였다.



소리꾼 신가희. <전통문화관 제공>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전통문화관 박희순 팀장은 "한 해 동안 상설절기계획, 토요일 상설공연을 융합해 '토토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주와 전통문화관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을 선보여 왔다"며 "내년에도 좀처럼 준비해 우수한 상설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통기타 선율'에 젖는 광주의 밤

정용주 콘서트 '세월이 가면' 오늘 밤 서빛마루문화예회관 '45년 외길' 광주 1세대 뮤지션 '지리산' 등 감성 포크송 선보여



몽골식 캠핑텐트 앞에서 야외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정용주(왼쪽)씨. <정용주 씨 제공>

"당시 사직공원 통기타 거리에 위치했던 라이브 카페 '사직골'을 인수했어요. 그땐 광주에 노래방 기계도 거의 없던 시절인데, 카페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광주 통기타 음악의 맥이 끊어 지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열려 버렸죠. 그 뒤로 수십년이 흘렀습니다"

광주 공연예술계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광주에서 활동하며 음악 인생 45주년을 맞은 예술가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과 희망을 준다.

광주 통기타 감성 관객으로 '통(通)' 하는 포크 뮤지션 정용주가 엔데믹 이후 첫 공연을 마련했다. 산울림예술촌이 1일 오후 7시 30분 서빛마루 문화예회관에서 여는 정용주 콘서트 '세월이 가면'이 그것.

광주 1세대 통기타 뮤지션 정용주는 1978년 광주MBC '별이 빛나는 밤에'로 데뷔한 후 총장로 옛 가든백화점 인근에서 '소리마당'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또한 조선대 거리, 사직공원, 매월동 호수, 예술의거리 등지에서 포크음악을 선사했다.

음악 인생 45주년을 맞는 감회를 물었더니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결국 살아남는 비결"이라며 "어떤 시절이나 음악계는 늘 힘들었지만 포크송이 주는 고즈넉함에 매료돼 이 길을 묵묵히 걸어 왔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음악을 하며 만났던 인연들이야말로

기타를 놓지 않게 만들어 준 '예술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사직공원 통기타거리를 중심으로 공연을 많이 했죠. 2~30년 전 그곳에서 연주했던 모든 무대 하나하나가 아직도 선명해요. 세월이 가도 잊히지 않는 장면들이 괴로울 때마다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광주 문화예술계 전반이 타격을 입었지만, 공연예술계는 어느 분야보다 피해가 컸다. 그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22년에는 대부분 공연예술가들이 부업으로 연명하던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관객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인다"고 언급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45년 전 통기타 하나로 사직공원 기타거리를 누비던 시절이 아련히 남아 있다. 정용주는 다음과 같은 말로 청년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지역 밖에서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도 있고, 그런 예술가들의 마음도 심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광주'에 방점을 찍고 끈기있게 버티다 보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신만의 독창성 있는 음악세계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겠지만요. 신인들이 광주에 기대를 거는 만큼, 광주 또한 청년예술가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해요."

한편 이번 공연은 '세월이 갈수록', '지리산', '이렇게 비가 내리면', '눈물' 등 감성적인 포크송 레퍼토리로 채워진다. 여기에 건반, 퍼커션, 콘트라베이스, EWI(전자관악기) 등 사운드에 곁들여 질 예정. 초대 가수는 소프라노 홍선희, '꽃밭에서', 슈트라우스 작 '친애하는 후작님' 등 성악곡들을 부를 예정이다. 이외 '모란 동백', '위스키 온 더락', '죄녀에게'도 감상할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여수서 연극 잔치 열리네

시민회관에서 9~17일 전국연극제... 개막작, 김수로 연출 '돌아온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전국에서 축제맛이가 한창이다. 전남에서는 올해 처음 '전국연극제'가 열릴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전라남도과 여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여주시부는 '제1회 여향, 전남 전국연극제'를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연다. 전남문화회관과 여주시민회관 등에서 연극 경연대회, 초청공연,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다.

먼저 9일 여주시민회관에서 개막식, 초청공연

이 펼쳐진다. 개막작 '돌아온다'는 김수로가 직접 프로듀싱에 나선 극 작품으로 최영준, 강성진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라는 한 줄짜리 로고라인(영화를 요약하는 간단한 설명)은 감성적인 내용을 기대하게 만든다. 오후 5시 50분부터 상연 예정.

'전남연극인 페스티벌'도 관객들을 만난다. 11~15일 전남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김수로

축제에는 극단 '역사', 연극집단 '발' 등 6개 단체가 오른다.

이외 여주시 내 문화취약지역 및 대중공간을 대상으로 '아트딜리버리' 서비스도 운영한다. 극장 밖까지 공연을 배달해준다는 취지로 양로원 등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전석 무료. 공연별 장소 상이.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20대 중심 중·단편 한국소설 판매 증가

에스24 한국소설 판매 동향...5년새 중·단편 판매 10.8% 늘어

20대 젊은 독자층을 중심으로 중·단편 소설 판매가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한국소설의 출간 종수 또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24는 31일 '한국소설 판매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결과 한국소설 중·단편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지난 2018년에 비해 올해 판매량이 10.8% 증가했다. 특히 구매자층이 늘었는데, 2018년 대비 20대 구매 비중이 약 9%p 상승했다.

에스24 관계자는 "젊은 신예 작가들이 문단에 등장해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와 맞물려 팬덤을 활용한 다양한 단편집이 기획 및 출간되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며 "특히 숏폼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독자층이 짧은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소설 장편 분야 또한 지난 2018년과 비교해 올해 판매량이 11.6% 상승했다. 구매자 연령층도 2018년과 비교해 40대 비율이 약 6%p 늘어 총 40.3%를 기록했다. 40대는 좀 더 인기 있는 기성



작가들의 장편소설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 같은 양상은 베스트셀러 판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올해 한국소설 전체 베스트셀러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는 100위권 내 장편소설이 82종, 자리한 데 비해 20대는 장편소설이 64종으로 나타나, 관심도 차이를 보였다. 40대 한국소설 베스트셀러에서는 김훈 작가의 '하일빈'이 6위,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가 10위를 기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